

일본연구소 제 22회 수요집담회

일시: 2011.05.18.15:00

발표자: 김효진.

사회자: 이은경

제목:

한국 여성동인의 사례를 통해 본 일본 동인문화의 세계화

연구배경

- 코믹마켓으로 대표되는 동인지 즉매회 및 관련 이벤트의 세계화
- 외국인의 참여증가. 점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향(ex코스프레, 동인지를 스스로 만들어 서클에 등록해 파는 외국인. 한국인. 대만인등)
- 코미케카탈로그의 영어/중국어/한국어 안내페이지 등장 및 부분적으로 온라인 신청도입

-외국인 참가자의 증가는 두 가지 해석:

- 1.주류언론:일본대중문화의 침투결과
- 2.일본어 인터넷: 저작권 및 불법 다운로드에 기인한 부정적 반응

-일본대중문화와 관련산업의 세계화와 관련(ex 외국인 만화가의 일본시장 진출)

-동인의 정의: 같은사람. 즉 취향이 같은 사람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만화, 소설, 애니메, 게임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창작물(순수창작 또는 2차창작)을 자비출판 및 판매, 배포하는 사람들을 가리킴. 팬덤에 속하나, 보다 창작에 초점이 맞춰짐. 서구와의 차이(만화 및 성인물이 주류/동인지 제작/ 동인지 관련 이벤트 및 특화된 시스템이 존재)

연구초점

일본 동인 문화와 한국

-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동인문화와 유사하며 많은 영향을 받음. 그러나 일본 동인문화의 '한국판'인 것은 아님

-한국의 동인인구는 대부분이 10대20대 여성, 최근 30대로 확대되고 있음

-최근의 변화: 일본 동인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증가, 본 발표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초점

-관련 연구가 극히 적음: 소수의 문화/외국인의 접근이 제약됨(한국어 능력 및 주민등록번호 시스템)

-한국의 여성 동인작가에 초점: 만화 및 일러스트 중심, 일본어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포함

-이중(double)의 경계

*한국/일본이라는 사회문화적 경계

*한국의 동인커뮤니티 안에서 형성되는 경계:'친일'과 '반일'-차별화의 논리

연구내용

한국동인의 역사

-1989년 아마추어 코믹 연합(amateur comic association, ACA)의 결성 및 동인지 즉매회 개최, 2003년 26회로 종료

-ACA의 특징

*순수창자만화 중시, 프로지망생들의 연합, 지역별 지부, 초기의 코믹 마켓과 유사한 형태. 2차 창작, 소설(만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됨)

*1997년 청소년보호법 발효: 치명적 타격을 입힘

*1999년: 코믹월드(일본계 기업 s.e.techno 주최) 시작, 2011년 2월 현재 100회 개최

*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동인지 즉매회, 코스프레 경연도 함께 개최됨, 약 2개월에 1회 개최

*2차 창작과 소설에 대한 차별 없음

*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동인지 즉매회

*기타(아마추어 중심의 동인지 즉매회, 온라인의 유행)

한국동인의 특징

-일본 동인계의 유행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

-동인이 일정 정도 분리되어 있는 일본과는 달리, 동인만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함: 인터넷이 주요한 홍보수단

-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/커뮤니티를 개인 홈페이지보다 선호:홍보 및 상호 연결을 위해

-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음(예외로 BL소설 커뮤니티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 실시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)

한국동인의 경계넘기

-계기:1999년 이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-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 높아짐

-일본 여행/체류 경험자 증가: 관광객 및 유학생, 어학 연수, 워킹 할리데이 등

-한국의 경제적 발전:체제 가능한 관광지로서 일본

-고속 인터넷의 보급 및 한일/일한 자동번역 시스템의 발달"일본어 인터넷에 노출될 기회 증가

-일본어 능력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

-2000년대 초반 이후, 일본의 동인지 즉매회 및 일본어 인터넷을 통한 일본 동인 참가가 증가

-최근의 중요한 변화: 2007년 국제적 온라인 일러스트/만화 커뮤니티PIXIV의 서비스 개시-포스팅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, 점수제의 도입

-현황: 모든 장르에 골고루 분포(남성향 성인물 제외),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장르 및 순수창작에서 두드러짐(ex 오토메 게임/동방 프로젝트)

-‘이행의 공동체’(金田淳子)로서 동인의 세계화: 국경을 넘어 일본의 동인과 교류 기회 증가

-‘本場’이자 세계 최대 동인 인구를 보유한 일본 동인: 동경의 대상

구체적인 사례

-사례1(일본거주 유학생): 일본의 동인과 교류하기 위해 일본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

본어 사이트 개설, 동인지 즉매회에 지속적으로 참가

-사례2(한국거주, 사무직): PIXIV에 계정 만들고 작품을 업로드한 후, 일본 동인과 교류 시작-일본에서 기획된 '앤솔로지(합동으로 만드는 동인지)참가

-사례3(한국거주, 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): PIXIV를 통해 일본에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로 데뷔

문제들

-참여초기:부족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한일 동인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

-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이해의 어려움:한국 사회에서 배양된 역사에 대한 감각을 둘러싸고 참여한 대립

헤타리아(세계2차대전 및 현대 역사를 소재로 한 국가의 인화만화)

구성되는 이종의 경계:헤타리아 문제

-제1차 논쟁(2009) 한국의 동인 커뮤니티에서 최초로 제기되었으나, 매스미디어를 통해 주로 전개되고 한국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서 제외됨으로써 진정화

-제2차 및 제3차 논쟁:일본과는 관계 없이 한국의 동인커뮤니티 안에서 전개됨, 네이버와 한국의 익명동인커뮤니티와의 대립(ex anti hetalia blog)

-헤타리아 팬덤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 표출:특히 헤타리아를 다루는 한국 동인이 표적

-한국 헤타리아 동인은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을 것을 요구: 온라인 뿐만 아니라 동인지 즉매회, 코스프레 이벤트 등, 위반시 인터넷 상에서 신상공개

-일본 역사를 다룬 여타 대중문화 콘텐츠(박영귀/전국바사라 등)과 분리: '역사 왜곡'이자 '전쟁의 모에화'-"한국인이란 용서할 수 없다"

결론

-한국 여성동인의 경계 넘기:한국 동인/만화 시장의 불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상황

-<경계 넘기=경계의 소멸>이라기 보다는 <경계넘기=한국동인을 일본과 구분짓기 위한 노력/커뮤니티 내부의 차별화 노력의 증가>

-'이종의 경계':국경 뿐만이 아니라, 한국 동인 커뮤니티 내부의 경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

<질의 응답>

질문: 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. 한국 동인의 역사라고 할 경우 그 뜻이 모호하다. 한국에 존재하는 동인이라는 일반용어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. 동인지의 출판, 커뮤니티 사이트의 확산을 통해 시장의 형성되고 있는지. 그렇다면 출판자본 내지는 만화자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. 또한 문화상품으로서 어떻게 국경을 넘는지

답변: 만화동인이라는 대안적으로 사용. 향후 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문제. 자본의 출처가 애매함.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질문: 동인 문화가 제2차 패러디를 지칭한다면 1999년 한국의 동인 문화는 창작물이 중심인데 이들을 동인문화라고 할 수 있다. 만화 산업의 세계화와 동인 문화의 세계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.

한국 내지는 외국의 동인문화가 일본동인 문화에 편입된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동인문화의 세계화는 어떤 의미인가

답변: 첫 번째에 대해서는, 동인 문화를 지칭할 때 오로지 2차 패러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구성 비율의 문제. 창작물 역시 포함되는 것. 동인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.

두 번째에 대해서는, 일본사람들이 같은 취미를 가진 한국사람들(외국사람)을 받아들이는 현상(국적이 무슨 상관인가)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. 이처럼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.

질문: 만화문화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. 동인문화의 전개와 관련해서. 역사적으로 통사적인 흐름을 제시하면서 살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.

답변: 알겠음.

질문: 한국의 동인문화에는 2000년대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

답변: 동인문화를 적당히 즐기는 라이트한 층이 확산됨. 인터넷 사이트의 커뮤니티의 확산. 오타쿠에서 오덕후로 되는 과정(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일본문화의 전문가로 됨)

질문: 동인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함. 또는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

답변: 영국의 학자는 '아마추어 망가 무브먼트'라는 용어 사용. 대안을 생각해 보겠음.

질문: 동인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. 자본이 동인지를 종속시키진 않는가

답변: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.

질문: 한국 동인과 대만 동인의 교류는 없는가?

답변: 거의 없음. 한국에서는 대만을 친일이라고 싫어함. 한국의 헤타리아에 대한 혐오. 한국의 특수한 현상으로 보임.

질문: 차별화의 노력에 대한 것.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. 최근 일본에서 한류의 확산을 통해 오히려 한국적인 면을 어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차별화의 경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.

답변: 알겠음

질문: 많은 한국 동인들이 일본에 진출하는데, 그들이 성공하는 요인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일본의 기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.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성공요인을 '한국적'인 고유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.

답변:차후 반영하겠음.